

박종준 김혜란(하진.서진) 선교사가정의 선교스토리 57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험써 알자 (호6:1,3)

**살롬! 늘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고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는 후원교회와 성도님들께
존귀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표어: 하나님을 알자 / 사랑과 진리교회 야유회>

☺ 사랑과 진리교회 소식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알자”라는 표어로 올 한해를 시작 하였습니다. 소홀하고 멀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와 말씀 나눔의 주제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시리드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 초는 말씀 세미나를 현장에서 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MILA 선교회 대표로 섬기시는 오은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인간, 복음,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에서 35년간 목회를 하신 이용걸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열어 주셨습니다. 깊은 영성과 경험을 통해 전해 주시는 말씀은 많은 도전과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기도 덕분에 소그룹 모임은 조금씩 정착을 해 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4명의 리더 성경모임을 갖고 주일에 소그룹이 모이는데 청년, 장년 여성, 남성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삶과 기도를 나누는데 좀 더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5일 주일은 태신자 전도 초청주일로 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3명의 초청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주일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많이 믿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으빠네 지역에 지교회 개척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Oscar (오스카르) 과 Ramona (라모나) 부부의 가정에서 첫 <Oscar/Ramona 부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인인 Ramona는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자매이지만 남편인 Oscar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집을 오픈하여서 두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없는 흙길로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파라과이 장로회 신학교 소식

새학기를 맞이한 신학교는 3월초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3일간의 개강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부터 저는 부학장 겸 교수로 모든 학사 일정을 관리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1학기에는 5명의 졸업반 4학년에게 교회론을 가르치는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가족 소식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장남 하진이는 파라과이와 협약한 캔자스 주에 있는 Pittsburgh 대학에 입학 하였습니다. 최대 2년은 이곳 현지에서 파견 교수들을 통해 교양과목을 이수한 후에 전공과목 (화학공학과)은 미국에서 마치는 과정입니다. 학비가 꽤 높아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아직 부족한 영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업도 잘 감당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

1. 사랑과 진리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영적 부흥이 있도록
2. 5월 5일 태신자 전도초청 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초대에 응하여 복음을 듣고 믿는자가 넘치도록
3. 으빠네 지역의 오스카르와 라모나 부부를 축복하시며 복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 개척이 순탄하도록
4. 신학생들이 소명을 갖고 학업을 완주하고 말은 부학장과 교수 사역에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5. 아내의 건강 (호르몬, 알레르기, 면역력) 회복과 두 아들의 진로와 학업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